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3주일 2016.9.4.(다해) 제2015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소화성당 십자가(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지혜서 저자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주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봅시다.

제1독서 지혜 9,13-18 **제2독서** 필레 9-10,12-17 **복음** 루카 14,25-33.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사에 ‘나는 주님의 참 제자인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도희찬 대건안드레아 신부 | 소화분당 주임

사람은 은연중에 한 번씩 삶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시간이나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심리학자 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란 사람은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삶을 두고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란, 예를 들면 멋진 광경을 보고 감동을 느낄 때, ‘너는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일입니다. 또 고통 받는 누군가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너는 진정 연민으로 함께 할 능력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그냥 ‘너는 참으로 기뻐할 일들을 누리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가?’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앙의 삶이 내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너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서 참으로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혹은 ‘신앙의 삶은 너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그 질문에 대해 신앙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기를 바란다’고 할 겁니다. 것처럼 신앙은 내가 진정 얻고 싶은 마음과 삶을 위해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내 삶에 하느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여타의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릇된 욕심과 집착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습관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포기하고 버리는 아픔이 있기에 때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희생을 치르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치른 후에 그 대가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맞본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무엇을 포기하고 버렸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신앙으로 원했던 모습과 삶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희망을 지닌 채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며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에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신앙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잊어버린다면 이 길에서 자신에게 의미와 희망도, 기쁨과 행복도 줄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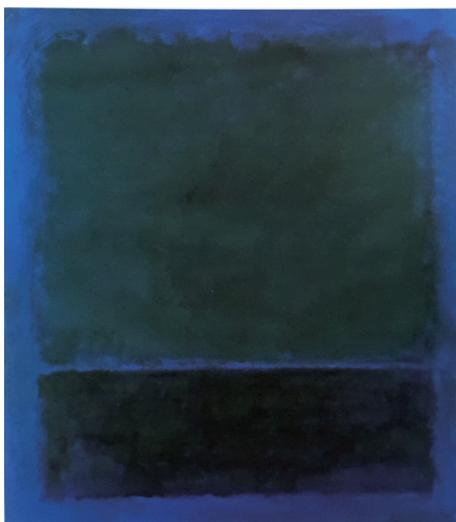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선택한 이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 시금 가슴에 새겨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회 문화 산책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와 마크 로스코

백미혜 크리스티나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성 프란치스코 ‘피조물의 찬가’ 중)



무제 / 캔버스에 아크릴 / 266.7 * 205.21cm / 1964

여름 내내 찢어질 듯 울어대던 그 매미일까요? 실수로 집 안에 들어온 참매미 한 마리가 벽 이곳저곳에 머리를 부딪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겐 한없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 공간도 출구를 잃은 매미에게는 사방이 감옥이군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데 성공한 화가 로스코는 예술의 깊이로 종교적 신비를 읽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는 ‘소통 표현주의’라는 말로 뉴욕의 한 미술학교 강연장에서 그림을 만들어 내는 레시피, 즉 자신의 ‘예술작품 조리법’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과 너의 내면이

서로 사무쳐 ‘우리가 되는 장소’를 만들 수 없다면 그림은, 예술은 어떤 존재 이유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하느님 사랑으로 자연물과도 교감하고 소통했다고 전해지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말이지요.

이 시기의 로스코 그림은 대형 캔버스에 두 세 개의 사각형 색채덩어리를 쌓아 놓은 것 같은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 관능성, 긴장, 자기 검토, 위트와 아이러니, 덧없음의 인간적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퍼센트의 희망 같은 것들을 유화제처럼 용해시켰습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드라마틱한 그림입니다.

로스코는 예일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스 고전문학, 초창기 성서 문헌학 연구까지 섭렵한 화가로 미켈란젤로와 마티스의 작품들을 사숙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도판은 하버드대학교의 벽화 작업을 위해 일하던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그림은 좀 슬픈 느낌이 듭니다. 그 시기에 로스코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일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임종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에게 ‘피조물의 찬가’를 불러줄 것을 청하지만, 지금은 그 찬미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임종 직전에 그 찬가에 자매인 죽음을 첨가함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 하셨지요.

어쩌면 예술은, 그림은, 시와 음악은 이런 사랑들이 지상에 떨어지고 간 천상의 자식들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 비친 자비의 희년

이지현 세레나 팀장 |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은 말 그대로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 위한' 기간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칙서를 통해 하느님 '자비하심'의 영성을 잘 알려주는 모델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목하고, 자비는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예수의 전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비의 희년에 사회의 변두리, 고통스러운 이들의 외침을 듣고 자비로 결합하고 연대해 형제자매의 상처,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범죄가 정신질환이 원인인 것처럼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현실 감각이 매우 혼란되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힘의 반동으로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러한 편견에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극히 일부의 상황이 마치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제 정신질환은 뇌의 병으로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분비 등의 현상으로 인해 현실감각에 이상이 오는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재발의 반복으로 만성화 되는 경우에는 다소 장애의 상태에 놓이긴 하나 재활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이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활활동을 통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아브라함 링컨, 퀴리부인, 고흐, 베토벤, 헤밍웨이, 존네쉬 등)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시대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웃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만성화되어 조금 어눌해 보이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의 고통스러움의 외침을 듣고, 자비로 결합하고 연대해 형제자매의 상처, 존엄성을 잃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



교황님 이야기

교황님의 나라,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교황님에 의해 통치되는 신권국가인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시 북서부에 있는 독립 시국(市國)으로 정식명칭은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입니다. 교황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곳으로 교황청(The Holy See)이라는 말과 혼용되는 바티칸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신자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0.44km²이며 842명(2015년 현재)의 인구가 살고 있는 바티칸은 바티칸궁전, 성베드로대성당, 바티칸도서관, 바티칸박물관, 바티칸 방송국 외에 교회행정과 학술, 문화, 과학 등을 관장하는 많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바티칸이란 이름은 길흉화복을 점치던 무당을 말하는 ‘바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티들의 언덕(Mons Vaticanus)’이었고 고대 로마인들이 ‘점(占)치는 언덕’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들의 장소인 곳이 가톨릭 교회의 총 본산이 된 것은 이곳에 만들어진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셨고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면서 베드로 사

도의 묘지 위에 성베드로대성당이 세워졌고 5세기경에는 바티칸궁전이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역대 교황님들이 바티칸궁전 주변의 땅을 매입하였고, 8세기부터는 교황령을 통치하는 교황의 정식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번창하던 바티칸은 19세기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교황령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1929년 2월 11일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만 갖고 있으며 국방은 이탈리아에 위임하였고 교황님의 경호와 교황청의 경비는 과거 용병시절 맹활약을 펼친 스위스 근위병들이 맡고 있습니다.

바티칸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먼저 전 세계 모든 가톨릭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교황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과 그분을 보필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국제 관계에서는 ‘성좌(The Holy See)’를 공식 국가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독립국가로서 교황령을 통치하는 정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교구의 교구청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바티칸은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재 100여개 이상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63년에 12월 11일에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



교구 행사

■ 박성대 요한 신부 은퇴미사



2대리구 교구장 대리 박성대(요한) 신부의 은퇴미사가 8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에서 봉헌되었다.

■ 정연환 관덕정 윤일회 회장 도보순례



서울 명동성당에서 부산 남천성당까지 도보순례를 시작한 정연환(비토리오) 관덕정 윤일회 회장은 8월 26일(금) 오후 5시 성모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를 예방하였다.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한티 가는 길’ 도보성지순례

19세기 초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걸었던 길을 모티브로 한 도보 순례길 ‘한티 가는 길’이 개통됩니다. 경북 칠곡군 가실성당에서 한티 순교성지까지 전체 5구간으로 총거리는 42.7km입니다. 개통식: 9.10(토) 10:00 가실성당

▶ ‘한티 가는 길’ 구간별 안내

- 1구간: 가실성당-임도입구-숲길입구-전망데크-제1연화교-도암지킴터-성모상-신나무골성지(10km)
- 2구간: 신나무골성지-연화임도-전망킴터-땃골자-양떼목장-창평임도-숲길 갈림길-창평지(8.9km)
- 3구간: 창평저수지-쌀바위-능선길 끝-금낙정-여부재-실골삼거리-송산지-동명성당(8.1km)
- 4구간: 동명성당-동명지입구-동명수변공원-양지교-청산농원킴터-남원교-원당공소-진남문(7.4km)
- 5구간: 진남문-시크릿가든입구-평산아카데미-한티 순교성지(8.3km)



고성성당 새성전 건립 기금 마련 뮤지컬 <서울할망 정난주> 공연

일시: 9.23(금) 19:30 / 9.24(토) 15:00, 19:30 / 9.25(일) 16:00
장소: 오페라하우스 문의: 고성성당, 352-1412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9월 5일(월) 10:30 범어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5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7일(수) 11:30 계산성당
말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9월 7일(수) 19:00 근화여자고등학교 경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9월 성소 모임

일시: 9.10(토), 9.24(토) 14:00

장소: 관구본부(서강대 옆)

문의: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9.11(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일시, 장소는 전화상담 후 정할 수 있음

대상: 선교 수도생활 관심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9.11(일) 14:00

장소: 가톨릭 근로자 회관 경당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9.20(화)~21(수)

시니어 피정: 9.27(화)~28(수)

장소: 효령 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기간: 9.24(토) 15:30~25(일) 16:3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피정비: 6만원

문의: 313-3425 / (010)7103-3425

맑은 숲 가족 피정

일시: 10.22(토) 10:00~16:30

장소: 군위 소보동지(미사 포함)

대상: 가족

회비: 1인 3만원

신청: (010)2649-2045

제4차 부산교구 영성의집 치유 대피정

기간: 9.23(금) 22:00~24(토) 16:00

철야기도회 일정포함(철야버스 동일은행)

준비물: 세면·미사도구 준비(참가비 없음)

문의: 영성의집, (055)382-9465~6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9.19~22 / 9.24~27 / 9.30~10.3

10.5~7 / 10.11~14 / 10.18~21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개강: 10.26(수) 19:00~21:00

10.28(금) 10:00~12:00

교육시간: 주1회 2시간(총 8주 16시간)

문의: 254-2664 / (010)3228-3330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0.1(토) 17:30~3(월)

4박 5일: 9.5(월) 14:00~9(금)

8박 9일: 9.22(목) 14:00~30(금)

에니어그램: 9.9(금) 15:00~11(일)

문의: (031)946-2337~8

제20회 캐나다, 필리핀 영어연수

출발: 3차 9.24(토)

지역: 밴쿠버, 바콜로드

내용: 영어연수, 문화체험, 봉사활동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부산교구 훈인강좌 강사 초빙

지원자격: 가톨릭신자와 심리학 전공

자로서 현재 전공분야 직업을 가진 분

신청: family@catb.kr

이력서마감: 9.11(일)

문의: (051)629-8775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Comprehensive & Integrative Medicine Hospital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기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이원 의료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발아플맨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일본성지순례
후쿠오카, 히라도, 나가사키
※ 출발일: 11월 23일(3박 4일)
T. (053)253-3399
조 힐레(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종훈 (바오로)
분부원: 아토피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마용: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남시장역 3번출구 T.053) 651-8800

치질수술경쟁
내시경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 **내과** 병원
분부원: 노성균 신정훈
의사: 이우주, 노성균, 노성훈
대구아파트합 959-7175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행사 | 모임

제3회 노인의 날

일시: 10.8(토) 11:00~16:00
 장소: 성모당 일대 / 1천원(중식 제공)
 대상: 본당 65세 이상 어르신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대구평화방송 개국 20주년 기념미사

일시: 9.9(금) 17:00, 계산성당
 주제: 조환길 대구교, 사제단
 대상: 초청인사, 대구평화방송 후원회원, 일반신자 누구나 참석 가능
 문의: 대구평화방송 총무팀, 251-2610

꽃동네 40주년 낙원묘지성당 축복식

감사미사: 9.8(목) 13:30
 출발시간: 8:30
 출발장소: 예약접수 후 통지
 차량문의: 음성꽃동네, (010)5939-6352

교육 | 모집

파스카 팀공부 모집

모집기간: 9.4(일)~10월 초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4시 이후)

기초반 수화교실 개강

기간: 9.4~11.20(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제2교리실 / 12주
 수강료: 8만원(교재비 별도)
 신청: 농아선교회, (010)3809-0447

새빛학교 기초영어·한문반 모집

영어 개강: 9.8(목) 13:00
 한문 개강: 9.13(화) 15:00
 문의: 교무실, 476-3100(교대역)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 오카리나, 수지침,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심리상담사2급, 수필창작, 제대·사범꽃꽃이, 클래식기타 / 신청: 254-6115

바트로교육센터 하반기 강좌(12회기)

피규린 성경공부반
 기간: 9.22~12.8 매주(목) 10:00~12:00
 생명 생태 살림반
 기간: 9.20~12.6 매주(화) 10:00~12:00
 문의: 783-9817 / (010)3484-3342

바오로딸 행복한 책읽기

일시: 9.23(금) 19:30~21:30(선착순마감)
 장소: 바오로딸서원 2층 교육장
 내용: 자아성숙과 인간관계 발전
 대상: 40~60대 / 10주간 12만원
 신청: 최주세피나 수녀, (010)3788-8579

서부지중해 4개국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0(화)~30(금) 10박 11일
 장소: 이태리,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경비: 내측 548만원, 발코니 598만원
 1인실(싱글룸) 예약 가능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채용 | 안내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지원자격: 요양보호사 1급
 문의: 파티마홈, 324-1188

분도명상의집 직원 채용

우대조건: 피정의집 주방 유경험자
 주거가능 /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신청: (051)582-4573 / (010)6650-4574
 bundobusan@naver.com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대상: 2007.1.1 이전 장례하신 묘주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과로 신고 바랍니다. 추석 당일에는 혼잡하므로 추석 전후에 성묘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음/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의 학 박사 동국대한의학과 외과교수 **김성철(최보)**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흉터클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오피스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등대꽃 건강방선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이 카타리나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안시·렌즈삽입술·노안수술·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과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 **053)626-8881~5**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선물용 경옥고 제품 공진단
 경옥고(젤류, 환, 차, 팩, 샴푸 등)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